

韓國教會에 미친 儒敎思想



蔡 弼 近

一、基督敎와 다른 宗敎의 影響

法律、政治、文學、哲學、藝術、宗敎、風俗、習慣 등 그 밖의 무슨 文化現象이든지 다 국가사회의 內外로나 年代時期的 前後로나 서로서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儒敎와 道敎와 같은 것은 서로 다르면서도 함께 中國에서 나서 성장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점이 많으며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도 그 지방이 서로 멀지 아니한 西아시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역사적 교섭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儒敎와 그리스도

교는 그 발생한 지방으로 보든지 연대로 보든지 현저한 바 적지 아니하여 그 敎義와 儀式에 있어서 서로 대조하며 비교해 볼만한 점이 많지 않다고 할만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중국에 들어 온지는 이미 數百年이 지났고 우리 나라에 들어 온 것도 舊敎가 近二백년이요 新敎도 八十년이 되어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와 儒敎의 관계도 없을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교와 佛敎의 상호관계와 같이 밀접하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佛敎는 확실한 宗敎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와 비교하고 논평할만한 방면이 많거니와 儒敎는 종교라는 것보다 도덕 방면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하여 저극적 영향을 주었다고 할만한 재료는 별로 없다고 할만하다. 우

리나라에는 佛敎로 말미암아 國民의 머리에 宗敎的 觀念이 깊이 박힌 점이 매우 많다. 天堂이니 地獄이니 極樂世界니 좋은 곳이니 使者니 閻羅大王이니 하는 佛敎에서 쓰는 말들이 일반민중에 깊이 잠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經典에는 天堂이란 말이 없고 天國이니 하나님이나 나니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지마는 일반신자의 하는 말에는 거의다 天堂이란 말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儒敎에는 宗敎的 思想이 매우 稀微하기 때문에 무슨 심각한 종교적 영향을 받은 것은 많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유대에서 발생하여 전세계에 전파된 歷史的 事例를 볼 것 같으면 북음이 헬라에 들어가서 哲學的 思辯의 으로 발전하고 로마로 進入하면서 制度的 實踐的 으로 발전을 잡고 문예부흥 시대에는 藝術的 人文主義的 으로 장식을 더하고 종교개혁 시대로 옮기면서 민족적, 自由思想的 으로 進就하였다. 그리스도교가 獨佛英美의 선교사업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傳佈되면서 印度의 信徒는 坐禪, 瞑想의 姿勢를 취하며 中國의 信徒는 忠孝, 友愛의 倫理를 高調하는 것이다. 在末 思想의 育成에서 오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아서 日本이나 中國에 먼저 들어온 宗派는 舊敎의 예수派(Jesuits)이었다. 이 宗派의 宣敎師들이 中國에 傳道함에는 祖先崇拜의 祭祀가 큰 隘路임을

느꼈다. 上帝를 尊敬하는 것도 좋고 미신을 타파하는 것도 좋으나 祖先崇拜과 奉祭祀하는 것을 폐하는 것은 크게 꺼리는 바이었다. 그래서 東軍人의 祖光奉祭는 神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요 윤리적으로 기념하는 것 뿐인 즉 신자들도 祖先에게 奉祭하여도 무방하다고 가르쳤다. 이것이 후일에 다른 宗派僧侶의 告發로 敎皇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카톨릭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 드디어 父母奉祭도 필경 宗敎儀式이 된다고 판정되어 祖先崇拜의 祭祀를 폐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一七七三年에는 敎皇 클레멘트 제十四世가 勅令을 내려 예수派의 조직을 해산시켰다. 이때의 예수派가 범한 罪目으로서는 여러나라에서 정치에 간섭한 것과 다른 종파와 爭論을 거듭한 것과 교회를 박해한 것과 異敎의 慣例를 추종한 것 등이었다. 異敎의 관례를 추종하였다는 조항속에 祖先에게 제사하는 것도 내포되어 있었다. 그 후에 예수派는 다시 解禁을 받기는 받았으나 다시 옛날의 왕성한 태세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말았다.

二、神에 대한 人格觀이 不足함

儒敎 思想에는 神에 대한 人格的 觀察이 불완전하다.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神을 흔히 天이라고 불렀는데 하늘이란 말은 암만해도 自然神論의 범주가 농후한

말이다. 서양에서도 神을 하늘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古代로 부터 人格의 意義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中國에서는 天命이니 天道니 天心이니 하여 대부분 善한 것이었지마는 회람神話에는 神에게도 질투가 있고 爭鬪가 있고 惡意와 폭행이 많이나타났다. 여기서 儒敎思想에는 神의 屬性과 인생의 罪感에 대하여

깊은 인상이 박혀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孔子가 「사람이 죄를 할까 얻으면 발꿈치 없다」고 하였고 孔子가 病中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위하여 기도하기를 청하였다. 거기 대한 공자의 대답에 내가 이미 기도한지 오래다고 하므로써 기도하는 것을 거부한 셈이다. 제자들이 鬼神심기는 道理를 물은즉 孔者는 사람 섬기는 道理도 모르면서 무슨 鬼神심기는 도리를 묻느냐고 하였고 죽음에 대하여 물을 때에 사는 일도 모르면서 어찌 죽는 일을 알고자 하는가고 반문하였다. 좌우간 儒敎思想에는 神觀, 人生觀, 罪觀이 다 明確하지 못하다. 가령 모든 罪 가운데 不孝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한 것과, 여자에게는 일곱가지 離婚할 罪目이 있다는 것을 보면 罪에 대하여 명료한 관념으로 劃定한 것이 없다고 할만하다. 佛敎에도 苦觀은 철저하나 罪觀이 부족하여 殺生罪나 偷盜罪를 해명함에 있어 짐승이나 벌레를 죽여도 殺生罪가 되거니와 人命을 殺害하는 것은 大殺生의 죄가 된다하며 三錢以上の 金品을

도적질하는 것이 大偷盜罪가 된다고 한 것을 보면 죄에 대한 定義와 표준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罪觀이 명확하지 못하면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이기려는 罪感이 심각하여질 수가 없고 죄를 회개하고 성결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 부터 儒敎를 신봉하여 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자가 되어도 罪感이 철저하지 못하다. 殺人이나 도적질이 죄되는 줄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봉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貪心을 품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을 깊이 느끼지 아니한다. 따라서 法庭에서 證人의 宣誓하는 것이 그다지 믿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神의 성결하시고 신실하시며 공정한 성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종교란 것은 有限하고 죄많은 인간이 무한하고 거룩하신 神과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죄가 있기에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神의 세계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信仰이 있을 것이면 자기 자신도 죄악을 버리고 성결해지며 거짓을 버리고 신실해지며 偏見을 버리고 공정해지므로 차차 神性을 닮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儒敎에서는 自然神論의 神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人格的 교제를 별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來世觀이 부족하고 瞑想을

하는 습관이 없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의가 약한 것이다. 그러나 儒敎도 宋明時代에 이르러서는 道敎와 불교의 영향을 입어서 坐禪과 비슷한 수양을 하게 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儒者들은 대부분 세상名利에만 몰려서 진정한 宗敎的情緒를 함양하지 못한 느낌이 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우리 나라의 신자들에게는 좀처럼 神과 교제하는 神靈한 修道者의 범재가 나타나니 하고 여전히 世俗사람의 낯은 태도를 가지고 도 자기는 잘 믿거나 하는 수가 많다.

(고전 三章 一一三)。

三. 自然主義 思想이 强함

佛敎에는 運命論的 因果論的 사상이 강하고 道敎에는 反動的, 虛無主義의 思想이 강하고 儒敎에는 도덕적 自然主義의 思想이 강하다. 孔子가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있고 부하고 귀한 것은 운명에 있다」고 하였으며 「하늘로서 내게 德을 내렸으니 拒離가 내게 어찌하리오」하였으며, 孟子는 「하늘은 말로써 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일로써 보일 뿐이니라」고 하였으며 또 옛날 堯와 舜의 일을 말할 때에 「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되는 것은 하늘이요 부르지 아니해도 저절로 오는 것은 운명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儒敎經典의 으뜸이라고 할만한 周易을 占筮의 체이라고 하거나와 陽과 陰의

兩儀로써 성립된 八卦와 六十卦를 그어 놓고 國家社會의 大事와 一家와 개인의 私事까지 다 규정짓고자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自然主義에 의거하도록 만든 것이다. 葉錢과 비슷한 돈 세일을 거북등에 넣어 가지고 여섯번 흔들어 쏘으므로 六爻의 一卦를 만들든지 五十가지의 蓍草를 가지고 여러번 갈라서 세어가면서卦를 얻는 筮法이든지 다 人間理性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연에 맡기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

사람의 운명을 판정하는데 세상에 出生한 年, 月, 日, 時 곧 四柱八字를 가지고 論하는 것도 아무 理論的 근거도 없이 人間一生의 吉凶禍福과 生死興亡을 전혀 偶然, 자연에 돌리는 것은 아무 妥當性도 없는 일이다. 지금부터 二千年 전에는 온 세상에 二億도 되거나 하나하던 人口가 현재는 三十億에 가까워졌다. 과거 五十年 어간에 腥風血雨의 世界大戰도 두번이나 일어나 무서운 武器와 毒한 藥品에 끔찍스럽게 쓸어지면서도 人口는 거의 二倍나 증가된 것이다. 한날에 몇명의 아이가 나느니 한 시간에 몇명의 사람이 죽느니 계산하는 것보다도 한한번 잠깐하는 동안에도 아이의 나는 것과 사람의 죽는 것이 여럿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時間에 출생하여 四柱八字가 똑같은 사람이 많다는 말이다. 그 사람들은 祖先, 傳來의 遺傳과 家庭과 環境과 敎育과 性

格과 活動과 職業이 제각기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出生年日時가 같다고서 그 一生生活과 당하는 경우가 같으리라는 것은 참말 言語道斷이다. 내 짧은 一生에도 출생한 年月日時 곧 四柱八字가 꼭 같은 사람들의 生涯가 전혀 다른 것을 여러번 경험하였다. 내가 아이 때에 친척집에 시집갔던 딸이 本家에 와서 애기를 낳았다. 그 집머느리는 本家에 가지 아니하고 시집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랫방에서는 머느리가 아이를 낳는 그 시간에 윗방에서는 딸이 아이를 낳았다. 들다 아들이었다. 稀微한 내 記憶에는 이 두 아이는 四柱八字가 똑같이 甲午, 丙寅 辛亥이었던 듯하다. 동녘사람들과 이것을 아는 친척들이 모두 이 두 아이는 장래 운명이 같겠다느니 같을리 없으리라느니 의논이 분분하였다. 그런데 머느리가 낳은 孫子是 農事를 잘해서 돈도 모으고 子女를 낳아기르고 六十이 가깝도록 잘사는 것을 보았고 딸이 낳은 外孫子是 浮浪者가 되어 거지처럼 도라다니다가 三十살 안팎에 客死를 하고 만 일을 규정하였다. 出生年日時가 같다하여 그 생략과 운명이 같으리라는 것은 實狀 아무 理論的 根據도 없고 歸納的 統計도 없는 순진한 미신에 지나지 아니한다. 더우기 웃은 것은 四柱八字를 가지고 장래 운명을 판단하노라고 하면서 또 凶한 것을 免하고 吉한 것을 일으려고 다시 무슨 방도를 講求하느니 呪術

을 사용하느니 하는 데 가서는 참말 運命論의 자살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 나라의 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敎職者나 識者級에 속한 사람이라도 일핏하면 八字가 나쁘다느니 身數가 좋다느니 財數가 없다느니 그런 運命論의인 말을 한다. 예배당에는 다니는 사람이 아들이 나면 占쟁이나 判數에게 가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도 있고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富음을 보느니 吉日을 택하느니 하는 일이 없지 아니하다. 믿는다고 하는 노인이 부모의 白骨을 파가지고 다니면서 明堂을 골라 改葬을 하는 것을 본 일도 있다. 우리 신자는 神의 능하신 섭리와 사랑하시는 축복을 확신하고 神의 稟賦하신 理性을 발휘함에 최선을 다할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在來의 미신과 他敎의 殘滓를 버치 못하는 것은 참말 딱한 일이다. 바울의 말과 같이 「내게 能力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 四章 十三)는 것을 굳게 믿고 바른 목표를 향하여 勇徒邁進이 있을 뿐이다.

四、勞力과 創作性이 不足함

儒敎는 孔子 자신의 생활과 같이 가루하고 겸양은 교훈을 한다. 부모가 계시면 遠方에 여행도 가지 아니하고 연령이 七歲가 지나면 男女가 한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肉類라도 方正하게 썰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

고 衣冠도 貌樣이 없이는 입지 아니한다. 암만해도 儒敎와 孔子는 너무 지나친 形式主義에 가깝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孔子는 農事와 園藝를 못는 弟子에게 대하여 나는 志農이나 志圃가 아니라고 대답을 거부하고 말았다. 몸소 목수 노릇을 한 그리스도나 기름 장사를 한 플라톤과는 氣風이 아예 다르다. 또 孔子는 「나는 記類은 할찌언정 創作은 아니하노라」고 宣言하였고 그 孫子 子思는 中庸이란 책에서 그 祖父인 孔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堯舜을 祖述하고 文武를 憲章하였다」고 증거하였다. 그러던 孔子와 그 제자들은 勞動하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새 것을 創作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다시 말하면 「새로 새 法을 내지 말고 옛날 法을 그대로 지키라」는 保守的 태도에 머물었다. 孔子는 徒弟들에게 국가가 道義的인 시대에는 朝廷에 出仕하는 것이 좋고 국가가 道義的이 아닌 시대에는 은퇴 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소극적 處世術에 그치고 적극 濟世策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犧牲奉事의 정신이 빈곤하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儒敎思想에 젖은 까닭에 官尊民卑, 男尊女卑, 士貴工賤의 풍습이 심하다. 과거의 四色黨爭이나 近日의 감투싸움이 다 여기서 시작되었다. 日本留學이 성행될 시절에 日本各地에 있는 대학에는 學部나 專門部를 불문하고 法科, 政治科에는

한국학생들이 많이 쏟아 모였던 것이다. 오늘날 國內에서도 理工系統에는 가는 학생이 적고 法政方面에는 定員보다 몇배가 되도록 蟻集한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어디 갑니까」하고 물어보면 가기는 가면서 「가는 데 없소」하는 대답이 일수 잘 나온다. 또 「요사이 무엇을 하십니까」하고 물어보면 「하는 것 없소」하거나 「그저 놀니다」하는 대답이 흔히 나온다. 이것이 다 옛날 양반은 치위 일기는 할찌언정 겨들은 쪼이지 아니하며 배는 고프면서도 손톱으로 물을 퇴기는 데서 생긴 나쁜 버릇이다. 손톱을 파작 깎지 아니하고 길게 기르는 풍습은 자기는 일하지 아니한다는 자랑이었다. 古語에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功名心에 醉한 잠고대인가 한다. 芳名을 竹帛에 실어 千秋萬世에 傳한다는 생각은 선비된 사람들의 野望이었다. 이렇게 이름의 永生을 추구하는 것이 長處도 있기는 있지만은 短點이 더 많은 사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누구는 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머지도 말라」는 바울의 교훈은(데살後 三장 十) 萬古에 유명한 格談이라는 것보다 영원히 놓쳐서는 안될 眞理이다. 하나님이 犯罪한 아담에게 「네가 열매를 따먹고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따먹고 필경은 욕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따먹을 줄이지 아니하고 平安하게 놀고 먹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형제를 속하는 나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의 유일한 活路는 이제부터라도 勤儉力作하는 습관과 「勞動은 神聖하다」는 정신 밑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文學과 藝術의 創作도 필요하거나와 自然科學的、文明利器的 發見發明、創造創作에 거듭 거듭 성공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 肉體와 子孫의 活路만 아니라 우리 신앙과 종교에서도 그러하다.

주님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배앗는 것이다」고 하셨다 (마 十一장 十二). 다시 말하면 침쓰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使徒 베드로도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택하신자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르치면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였다.

五、倫理方面을 지나치게 高調함

佛敎를 哲學的 종교라고 한다면 儒敎는 倫理的 宗教요 그리스도교는 宗教的 宗教라고 할 것이다. 儒敎의 經典은 어느 책을 읽든지 道德以上 宗教의 世界로 進入하는 느낌을 내지 아니한다. 道德과 宗教를 비교하면 그 영역이 일치한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아니한지 방면도 있다. 좌우간 종교의 영역은 도덕의 영역보다 광범하여 종교인도 도덕적이야 하지 않는 도덕을 초월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非道德의이거나 反道德의거나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超道德의에 도달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가령 神과 信仰과 來世의 永福과 같은 것은 도덕에게 지배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神과 信仰과 來世觀이 도덕을 지배하는 것이다. 儒敎는 道德家의 歸依할 宗教요 佛敎는 哲學者의 歸依할 宗教라고 한다면 基督敎는 宗教다운 宗教가 되어서 모든 人生의 歸依하는 바가 될 것이다.

儒敎는 人生의 本務를 孝悌忠信과 仁義禮智信이라고 가르치며 人倫의 軌道를 三綱五倫이라고 劃定하였다. 이와같이 人生 相互間의 倫理를 종교라고 보았기 때문에 神과 人과의 관계도 명시한바 없고 人生路程의 목표와 來世의 賞罰과 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조차 느끼지 아니했던 것이다. 儒敎의 經典은 四書三經이니 五經、六經、十三經이니 하지 않는 모두다 倫理에 국한한 것으로 宗教의 境界에 進入하지는 아니하였다. 四書란 것은 大學、中庸、論語를 가리켜 하는 말인데 大學은 그 內容이 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 그 理念을 두었고 中庸은 그 精神이 誠에 있고 論語와 孟子는 人性論、修養論에 머물렀다. 三經을 말하더라도 易經의 占筮와 書經의 典、謨、誥와 詩經의 風、雅、頌이나 古代社會의 倫理的 關係를 나타낸 것이다. 위의 三經에 禮와 春秋를 더하여 五經이라고 칭하는데 禮經의 모든

禮儀法度와 孔子의 春秋直筆은 다 國家社會의 道德의 規범을 記錄한 데 지나지 아니하다. 儒敎 經典은 위의 五經에 樂記를 더하여 六經이라 하고 五經 중에서 禮經을 周禮、儀禮、禮記의 三經으로 分立시키고 五經中の 春秋를 左氏傳、公羊氏傳、穀梁氏傳의 三傳으로 各立시켜 九經이라고 稱하기도 한다. 九經에 論語、孟子와 孝經과 爾雅의 네가지를 넣어 十三經이라고 칭하여 儒敎의 經典은 여기 그친다.

十三經中에 春秋는 孔子의 親筆로 記錄한 史書이다. 權威를 가진 그의 春秋直筆이 亂臣賊子로 하여금 弑殺을 떨게 하였기 때문에 後世의 師表가 되는 經典이 된다. 易、書、詩、禮의 모든 經典도 古聖의 遺書인 동시에 孔子의 精選刪削을 經由하여 編成된 것이요 그 밖에 다른 經典도 直接、間接으로 孔子를 중심으로 하여 된 책들이기 때문에 外國에서는 儒敎를 孔子敎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儒敎에서 받은바 한가지의 古취한 精神도 經典의 重要性이다. 儒敎에서 古聖의 남긴 典籍을 聖經、賢傳이라고 부르면서 奉承하였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儒敎의 經典에 대해서는 甚히 존경하여 言語로나 行動으로나 감히 冒瀆하지 못하였다. 經典、文章가운데 錯誤된 文字가 있는 것이라고도 決코 손을 대어서 改訂하지 못하였고 文義 해석에 있어서도 愆意로 비판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經典

이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에 漢文으로 翻譯한 聖經을 보고 聖經이란 말에 厭厭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 近年에 와서 低等批評이니 高等批評이니 해가지고 銳利한 批評을 더하기는 하지마는 聖經의 엄연한 權威는 감히 冒瀆할 자가 없으리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교의 經典은 다른 종교들의 經典들과도 달라 하나님만의 靈의 感動으로 말미암아人間에게 啓示하신 眞理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다른 宗敎 經典에도 하나님의 直理의 빛이 비취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그것은 다 聖賢이나 先知者의 마음과 머리와 손을 經由하여 나타난 것이지만 그리스도교의 經典만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獨生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唯一無二의 聖經이라는 점에서 萬經의 經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나라 교회에서 講壇을 지키는 敎職者들이 아직 儒敎의 道德的敎訓의 影響으로 너무나 道德的 說敎를 많이 하는 듯하다. 宗敎의 敎義와 來世의 希望에 대한 說敎가 주가 되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從이 되는 듯하고 道德的 勸勉과 倫理的 講義는 從이 되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주가 되는 느낌이 없지 아니하다. 이것은 儒敎의 倫理至上主義의 영향인 듯싶다. 그러므로 우리는 福音至上主義의 그리스도의 精神을 바로 바를 터야 한다고 고조하고자 한다.